본 회

대한설비건설협회, 제36회 총회(정기) 개회사

국민연금 · 건강보험 비용 원가반영 및 사후정산제도 민간공사 적용토록 관련법 개정 추진

박종학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오늘 우리 협회 제36회 정기총회를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정승일 명예회장님, 홍평우 명예회장님, 이영식 조합 이사장님, 그리고 대의원 여러분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5천여 회원사 대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지난 한해 우리협회는 정부와 국회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추진상황에 대한 정보파악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등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비상체제의 한해였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처음부터 대단히 어려운 싸움이었습니다. 다른 협회는 처음부터 정부의 개혁추진과제인 겸업제한 폐지 개정안에 대하여 원칙적인 찬성을 하는 과정에, 소수단체인 우리협회만 정부안에 대하여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공청회와 수많은 협의과정에서 끈질기게 개선방안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국회 건교위 소속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 뵙고, 기계설비의 특성과 겸업제한 폐지의 불합리한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작년 12월 정기국회와 이어진 임시국회, 그리고 금년 2월의 임시국회까지 국회상정을 저지시켰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협회에 대한 이미지 홍보는 물론이고, 기계설비가 건설업의 4대 중심축인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중의 하나인 중요한 공종으로 확실히 인식되어가고 있습니다.

본 회

그러나 정부에서는 금년 4월 임시국회에서 겸업제한 폐지 법안의 국회 통과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계획인 바, 정부정책과의 계속되는 대립으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건의사항 관철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협회 창립 이래 처음으로 분리발주처럼 원도급으로 도급받을 수 있는 전문업종 간 공동도급 허용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는 과정을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산재발생시 PQ감점제도를 폐지하여 산재은폐 강요에 의한 하도급업계의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되었으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비용에 대한 사후정산제도 시행으로, 하도급을 위주로 하는 전문업계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올 한해에도 우리 협회는 회원사의 경영환경 개선과 업역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회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겸업제한 폐지 법안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강한 의지로 4월 임시국회에 재상정을 추진할 것인 바,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공공공사에만 적용되는 국민연금 · 건강보험 비용에 대한 원가반영과 사후정산제도를, 민간공사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대의원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변화와 개혁이 소용돌이 치는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 과거의 관행과 타성을 과감히 탈피하고 특히 가격경쟁의 입찰관행을 지양하고 품질에 의한 성실시공으로 신뢰를 쌓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총회는 올 한해 동안 우리 협회가 추진할 사업계획 및 세입 · 세출 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총회에 앞서 대의원 여러분께서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미리 우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업계 발전을 위한 기탄 없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총회에 참석하여 주신 대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2007. 2. 23.

대한설비건설협회 회 장 박 종 학

협회소식

대한설비건설협회 제36회 총회(정기) 개최

□ 2007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 등 원안대로 의결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박종학)는 2월 23일 설비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 대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6회 총회(정기)를 개최하고 2007회계년도 사업계획과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회보지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정관 중 일부 변경(안),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임기가 만료된 감사에 (주)우원 임종태 대표이사, 공석 중인 회원 부회장에 (주)성아건업 정해돈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 박종학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과거 관행과 타성을 탈피하고 가격경쟁의 입찰관행 지양과 품질에 의한 성실시공으로 신뢰를 쌓을 것"을 강조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 정산제 도입 등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제도개선 성사

이날 총회에서 박종학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

협회소식

▲ 박종학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은 설비건설업계 발전에 기여한 건설교통부 이백연 사무관 외 3명의 관련기관 실무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사진은 이백연 사무관)

▲ 박종학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은 성실시공으로 설비건설업계 발전에 공헌한 18명의 회원사 대표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 최기원 삼건설비(주) 대표이사가 기계설비협의회에서 제정, 선포한 '기계설비인윤리헌장'을 낭독하고 있다.

난 해는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정부의 건산법 개정 추진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았던 반면, 그 과정에서 우리협회에 대한 이미지 홍보는 물론 기계설비가 건설업의 4대 중심축인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중의 하나인 중요한 공종으로 확실히 인식되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박종학 회장은 또 "지난 해 산재발생시 PQ감점제도를 폐지하여 산재은폐 강요에 의한 하도급업계의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되었고, 국민연금 · 건강보험의 정산제 도입 등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제도개선이 성사된 기쁨도 있었다"면서 "올해에도 우리업계가 일치단결하여 건산법 개정과 국민연금 · 건강보험 정산제가 민간공사에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학 회장은 또 "하루가 다르게 변화와 개혁이 소용돌이 치는 시대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과거 관행과 타성을 탈피하고 가격경쟁의 입찰관행 지양과 품질에 의한 성실시공으로 신뢰를 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회원 부회장에 (주)성아건업 정해돈 대표이사, 감사에 (주)우원 임종태 대표이사 선임

이날 총회에서 부회장으로 선임된 (주)성아건업

협회소식

▲ 박종학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은 공석중인 회원 부회장에 (주)성아건업 정해돈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주)우원 임종태 대표이사가 회원감사에 선임되었다.

정해돈 대표이사는 "회장님을 잘 보필하여 우리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산법 개정안 등 발등의 불을 꺼야하는 시급한 과제부터 우리 업계가 풀어나가야 할 매듭을 하나하나 풀어감으로써, 6대 집행부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감사에 선임된 (주)우원 임종태 대표이사는 "6대 집행부가 국민연금 ·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과 건산법 개정(안) 등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면서도 예산은 크게 절감하여 작은 협회지만 타협회에 뒤지지 않는 역동적인 협회로 인정받는 만큼, 감사의 직책을 충실히 수행하여 협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 설비건설업계 발전에 기여한 KT 송상헌 충북본부장 등 4명에게 감사패 수여

한편 이날 총회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KT발주 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 시행과 시공관리업무 개선, 적정공사비 확보 등으로 설비건설업계 발전에 기여한 KT 송상헌 충북본부장 △실적공사비, 표준품셈 등에 대한 합리적인 적산기준 마련에 기여한 건설교통부 이백연 사무관 △지역건설업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 입찰, 계약제도 등 지방계약제도를 개선한 행정자치부 최두선 사무관 △교육시설공사를 분리발주하고 정확한 공정관리와 엄격한 품질관리로 설비시설물의 품질향상에 기여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강영훈 시설과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협회소식

△ 감사패 수상자 명단

성명	기관명	직책
송상헌	KT	충북본부장
이백연	건설교통부	사무관
최두선	행정자치부	사무관
강영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시설과장

□ 성실시공으로 설비건설업계 발전에 공헌한 회원사 대표에 공로패 수여

대한설비건설협회는 또 설비공사의 신기술 개발 및 성실시공으로 업계 발전과 설비건설업계 위상제고에 공헌한 정인설비(주) 박달하 대표이사 외 17명의 회원사 대표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 공로패 수상자 명단

성명	상호	직위	지역
박달하	정인설비(주)	대표이사	서울
김영욱	(주)대열설비	〃	서울
차동영	(주)경보엔지니어링	〃	부산
노수문	노수테크(주)	〃	대구
임기천	(주)부림기공	〃	인천
조성진	하남기업(주)	〃	광주 · 전남
우재원	우신설비(주)	〃	대전 · 충남
오명세	조일건업(주)	〃	울산 · 경남
원성희	(주)원진기건	〃	경기
이용철	(주)대영공조	〃	경기
박승균	새한공조	〃	강원
정두순	(주)SK엔지니어링	〃	충북
박정근	(유)풍산건설	〃	전북
김춘경	경원산업	〃	경북
오태권	(주)거윤	〃	제주
김일곤	우경산업개발(주)	〃	가스시공협의회
김기영	성창기공(주)	〃	플랜트협의회
김관수	보쓰엔지니어링(주)	〃	자동제어협의회

본 회

제109차 이사회 개최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박종학)는 지난 2월 6일 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제109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2007회계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의결의 건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회보지 사업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제36회 총회(정기) 소집의 건 △유공자 포상 결정의 건△정관 및 규정개정(안) 의결의 건을 의결했고 △부회장 보선의 건은 회장에게 일임했다.

박종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6대 집행부 출범 이후 건산법 개정안이 화두가 되어 2년여 동안 혼신을 쏟았고 이제 막바지 진통이 예상되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학 회장은 또 "우리 협회는 겸업제한 폐지 처리결과에 따른 건설생산체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연금 · 건강보험 정산제도가 민간부문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앞서 보고된 협회 주요 업무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다.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관련 추진현황
△ 국민연금 · 건강보험 원가반영 의무화 및 사후정산제도 추진
△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추진
△ 기계설비부문 표준품셈 개정 추진
△ 인정기능사 경력증 발급 및 관리업무 추진
△ 서울산업대학교 산학협력 위탁교육 추진
△ 전국 설비관련학과 우수졸업생 시상 추진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과다제출서류 축소 조정
△ 2007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추진
△ 인터넷 증명서발급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재편성 구축

본 회

시 · 도회장 회의 개최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박종학)는 지난 2월 2일 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시 · 도회장 회의를 개최하고 협의사항으로 △2007회계년도 사업계획(안) △2007회계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 △정관 및 규정개정(안)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종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년 전 6대 회장에 취임할 때 저 나름대로 그림을 그린 바 있습니다만, 시 · 도회장님들도 취임하시면서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셨을 것입니다. 그 당시 그림을 짚어 보시고 다 못그린 그림은 1년 동안 완성시키는 시간이 되시어 훌륭한 업적을 남기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박종학 회장은 또 "지난 1년간 건산법 개정 때문에 동분서주한 우리협회는 시 · 도회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차례에 걸쳐 막았다"면서 "앞으로도 시 · 도회장님들의 힘을 합쳐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앞서 보고된 그동안의 협회 주요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관련 추진현황
△ 국민연금 · 건강보험 원가반영 의무화 및 사후정산제도 추진
△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추진
△ 기계설비부문 표준품셈 개정 추진
△ 인정기능사 경력증 발급 및 관리업무 추진
△ 서울산업대학교 산학협력 위탁교육 추진
△ 전국 설비관련학과 우수졸업생 시상 추진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과다제출서류 축소 조정
△ 2007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추진
△ 인터넷 증명서발급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재편성 구축

본 회

제48차 윤리위원회 개최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박종학) 윤리위원회(위원장 정태건)는 지난 1월 30일 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제48차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유공회원 포상대상자 추천 심의의 건을 심의했다.

이날 윤리위원회는 2월 23일 개최 예정인 제36회 총회(정기)에서 협회 및 설비건설업계 발전에 기여한 18명의 유공회원사에 대한 추천을 심의하였다.

윤리위원회의 설비건설업계 유공자 포상 추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설비건설업계 유공자 포상 추천 기준

① 협회에 소속된 회원사 대표자

② 설비건설업 영위기간이 5년 이상이 자로서 2006년 시공능력평가액이 기계설비공사업 10억원, 가스시공업(1종) 5억원 이상으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자이다.

- 설비건설업계 및 협회 발전이나 업무수행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
- 공사의 성실시공과 하도급질서 확립에 모범이 되어 업계의 위상을 높인 자. 단, 상습적인 저가투찰, 입찰질서 문란 등으로 설비건설업계의 도덕성에 흠이 있는 업체의 대표자는 추천 제외
- 기업경영 또는 신공법 연구개발 및 시공실적이 우수하여 다른 회원의 모범이 된 자
- 기타 협회 및 업계의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된 자

③ 단, 공사실적이 추천기준에 미달하여도 설비건설업계 및 협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시 · 도회장은 추천할 수 있다.

본회 / 협의회 활동

제36차 가스설비공사협의회 개최

가스설비공사협의회(위원장 이효련)는 지난 2월 9일 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제36차 가스설비공사협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토의사항으로 △ 도시가스사에 제출서류 인터넷 접수 추진 △관로공사비용 부담을 세대수에 따라 부담토록 협의 △인입관 공사비의 현실화 등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고된 가스설비공사협의회 업무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다.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택공사 분리발주 현황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과다제출서류 축소 조정

△제출서류 목록 관련 협의 진행

△2007회계년도 사업계획서

본회 / 협의회 활동

제12차 자동제어설비공사협의회 개최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박종학) 자동제어설비공사협의회(위원장 윤영근)는 지난 2월 13일 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제12차 자동제어설비공사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006년 하반기 자동제어설비공사협의회의 주요 업무 추진현황으로 △우수 회원사 포상자 추천 △자동제어공사업역 확보 추진등이 보고되었다.

협의사항으로는 △자동제어설비공사 업역확대 △자동제어설비공사협의회 활성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는 월간 「설비건설」에 자동제어설비 시공기술 자료를 게재하여 자동제어설비의 시공기술을 확대 · 보급키로 하였고, 주상복합건물의 환기시스템,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절감설비 등의 연구검토 및 원격검침설비 업역 확보를 위해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각 시 · 도회

2006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실시

대한설비건설협회 각 시 · 도회가 지난 2월 10일부터 2월 15일까지 2006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를 실시한 결과 9조7천6백18억6천4백만원의 기성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 2005년 기성실적인 9조4천65억9백만원에서 3.78%늘어난 것으로, 침체된 건설경기의 영향으로 설비건설업계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신고 결과는 총 5,345개 설비건설업체[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공업(1종) 포함] 중 3,970개 회원사와 188개 비회원사를 합친 총 4,158개 업체가 지난 2월 15일까지 실적신고를 마친 것에 따른 결과이다.

현행 법에는 시공능력 평가를 받고자 희망하는 설비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실적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

서울특별시회

한국폴리텍 I 대학과 산학협력 체결

서울특별시회(회장 강석대)와 한국폴리텍 I 대학(학장 이상덕)은 지난 1월 30일 한국폴리텍 I 대학 세미나실에서 설비건설산업 발전의 실질적 역할을 담당할 기술인력의 육성과 회원사의 원활한 직무교육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서를 체결했다.

산학협력 체결에 앞서 강석대 서울특별시회 회장은 "우리 설비건설업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후진양성과 정보습득은 절대적"이라며 "서울특별시회가 해마다 추진하고 있는 산학협력 체결은 설비건설 종사자들의 전문지식 함양으로 회원사의 업무환경개선을 위해 건설산업 현장의 전문지식을 무료로 교육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덕 한국폴리텍 I 대학 학장은 인사말을 통해 "설비건설산업의 발전은 뛰어난 인재육성에 달려 있다"며 "산학협력을 통해 현장감 있는 교육이 산업현장에 접목되어 설비건설업계 발전에 기여토록 노력할 것"을 피력했다.

한편 이번 산학협력 체결로 한국폴리텍 I 대학과 △기술정보의 상호교환 △교수 · 학생의 현장시설 활용 △유능한 산업체 인사 겸임교수 위촉 △현장실무교육 강화 등이 이뤄져 산업기술의 변화에 적극 대응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회

2006회계년도 제5차 현장점검 실시

서울특별시회 시공품질점검위원회(위원장 임종태)는 지난 1월 17일 (주)금화피에스시(대표 송기영)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분리발주 받은 현장인 서산예천(2)아파트2-1공구 기계설비공사 현장에서 2006회계년도 제5차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충청남도 서산시에 위치한 이 현장은 공사금액 26억7천5백24만5천원으로 지난 2005년 5월 착공하여 2007년 5월 준공을 목표로 1월 현재 7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이날 현장점검은 서광문 위원[(주)신평씨엠씨 대표이사]과 정정호 위원[신영건설공영(주)대표이사], 백종윤 위원[윤창기공(주)대표이사]이 참석하여 현장을 꼼꼼히 점검했다.

시공품질점검위원들은 이날 점검을 마치고 "분리발주 공사이기 때문에 건축 공종 간 작업진행에 어려움이 많으나 발주처의 협조로 원만히 시공하고 있다"며 "대체적으로 현장 시공안전관리 상태가 양호한 현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장소장이 상당히 유능하며 원만한 성격과 기술로 잘 이끌어 나가는 모범적인 현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현장의 시공을 책임지고 있는 (주)금화피에스시의 우국승 현장소장은 "대한주택공사에서 분리발주 받은 공사이므로 우리가 설비건설산업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정신으로 시공에 임하고 있다"며 "현재 맡은 공사에 최선을 다해 지금까지보다 더 완벽한 시공을 위해 노력 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회원사 소식

(주)해광공영 윤광수 대표이사 외 6개 회원사 우수전문건설업체상 수상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정기총회서

▲ 우수전문건설업체 수상 후 기념촬영[좌부터 (주)해광공영 윤광수 대표, (주)태성종합엔지니어링 최재열 대표, 준제이엔씨(주) 고태식 대표, (주)한양강업 이영식 대표, 성마기업(주) 민평기 대표, (주)대정설비 임종한 대표]

(주)해광공영 윤광수 대표이사를 비롯한 7개 회원사가 지난 2월 21일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제39회 정기총회에서 우수전문건설업체상을 수상했다.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는 회원사의 협력업체 중 우수한 시공성과 공사관리능력을 자랑하는 협력업체에게 총회 개최시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12개의 우수전문건설업체가 수상했는데 그 중 7개 업체가 설비건설업체여서 설비건설업계의 기술력 및 시공관리능력을 입증한 셈이 됐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수전문건설업체 중 설비건설업체 수상자 명단

(가나다 순)

업체명	대표자	지역
(주)대정설비	임종한	서울
성마기업(주)	민평기	경기
유창공영(주)	김성태	서울
준제이엔씨(주)	고태식	서울
(주)태성종합엔지니어링	최재열	서울
(주)한양강업	이영식	서울
(주)해광공영	윤광수	경북